

## [15]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2186150>

---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5, 2015-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 第10回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 10th Worldwide Consortium of Korean Studies Centers Workshop

主催：ハーバード大学韓国学研究所／日時：2014年6月7日～9日／後援：韓国国際交流財団

第10回世界韓国学研究所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が米国ハーバード大学にて開催された。記念すべき10回目を迎えた本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は、2014年6月7日から9日の三日間にわたって、「New Generations, New Ideas in Korean Studies」というテーマのもと行われた。本年度は、世界各国の大学から総勢20名の若手研究者たちが研究発表を行った。九州大学からは、松原孝俊教授が、そして韓国研究センターセンター長である中野等教授が参加した。発表者としては比較社会文化学府博士後期課程の武藤 優が「日本興行界に現れた朝鮮イメージ — 1930年～1945年内地を中心に」を報告した。尚、本発表で私はBEST PAPER2014賞を受賞する光栄に恵まれた。本コンソーシアム会長である松原教授の開会挨拶を皮切りに、韓国の歴史、政治、食文化、ビジュアル等、世界各国から参加した若手研究者たちが8つのSessionに分かれ報告を行った。本年度は世界中の20の大学、20名による報告が行われ、白熱した質疑応答が繰り広げられ、どの報告者の発表にも皆一様に熱い視線が注がれた。そして初めての試みとして、各大学の教授陣が5つの学生グループに振り分けられ「メントリング・セッション」を行い、アジアの、そして欧米の最先端でホットな研究動向や研究アイデアなどをめぐって、関連に意見を交わし合う場も積極的に設定されたのにも、感銘を覚えた。なお、ブレイクタイムやランチタイムにおいて飲み物やサンドイッチなどを片手に学生や教授陣が集う「Harvard 式」Agora等を通して、自由な議論と「ソクラテスの対話法」の大切さを学ぶことが出来た。10年間にわたる本コンソーシアムの開催によって、世界的規模の次世代研究者約250名の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つつあることも実感した。ワークショップ開催期間中は天気にも恵まれ、からっとした晴天のもと古き良き赤レンガ造りの構内を散策するなどして、短い時間ながらもハーバードライフを満喫した。(武藤 優(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学府 博士後期課程))

제10회 세계 한국학연구소 컨소시엄 워크숍이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 열 번 째를 맞이한 본 컨소시엄 워크숍은 〈New Generation, New Ideas in Korean Studies〉라는 테마로 2014년6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 각국 대학에서 총 20 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다. 규슈대학에서는 마츠바라 다카토시(松原 孝俊) 교수와 한국연구센터 센터장 나카노 히토시(中野 等) 교수가 참가했다. 발표자로서는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후기과정 무토 유우(武藤 優)가 〈일본 공연예술계에 나타난 조선 이미지 -1930년~1945년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Korean Images in the Japanese Entertainment Industry, 1930-1945)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였다. 영광스럽게도 본 발표로 필자는 BEST PAPER 2014상을 수상하였다. 본 컨소시엄 회장인 마츠바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역사, 정치, 식문화 등 세계각국에서 참가한 젊은 연구자들이 8개의 세션에 나누어 연구발표를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 20개국 대학에서 참가한 20명의 학생들이 발표한 것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펼쳐져, 각각의 보고자의 발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각 대학 교수진이 5개의 학생 그룹으로 나누어져 멘토링 세션을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 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최신 연구동향과 연구 아이디어 등을 둘러싸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었던 점에도 감명을 받았다.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음료수나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들고 학생이나 교수진이 모이는 하버드식 아고라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논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다. 10년에 걸친 본 컨소시엄 개최로 세계적 규모의 차세대 연구자 약 25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실감했다. 워크숍 개최 기간중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한 날씨 속에서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버드 스쿨 라이프를 만끽했다.(무토 유우(규슈대학대학원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후기과정))

**Saturday, June 7**

- 8:45-9:00 Opening Ceremony  
 9:00-10:10 Session 1  
 Chaired by Mi-Ryong Shim  
 (Harvard University)  
 9:00-9:20 Student 1: Honglei Cao  
 (Sungkyunkwan University)  
 9:20-9:40 Student 2: Andrew Logie  
 (University of Helsinki)  
 9:40-10:10 Discussion: Yongchul Choe  
 (Korea University)  
 10:30-12:15 p.m. Session 2  
 Chaired by Bruce Fult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0:30-10:50 Student 3: Sunghee Kim (Harvard University)  
 10:50-11:10 Student 4: Hyejong Kang (Yonsei University)  
 11:10-11:30 Student 5: Daniel Piep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1:30-12:15 Discussion: Bruce Fulton and Young Seo Baik  
 (Yonsei University)  
 1:30-2:40 Session 3  
 Chaired by Paul Chang (Harvard University)  
 1:30-1:50 Student 6: Li Ning (Fudan University)  
 1:50-2:10 Student 7: Irina Lya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10-2:40 Discussion: Huck Ju Kwon (tentative)  
 (Seoul National University)  
 3:00-4:00 Mentoring Session  
 4:00-5:00 Group Discu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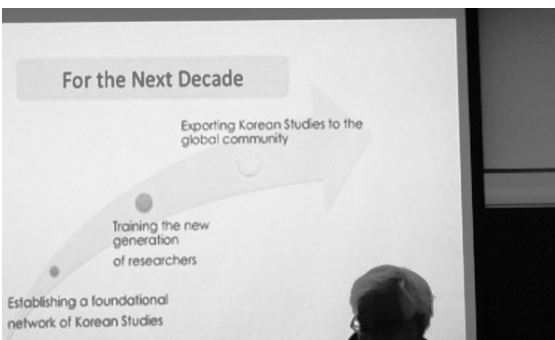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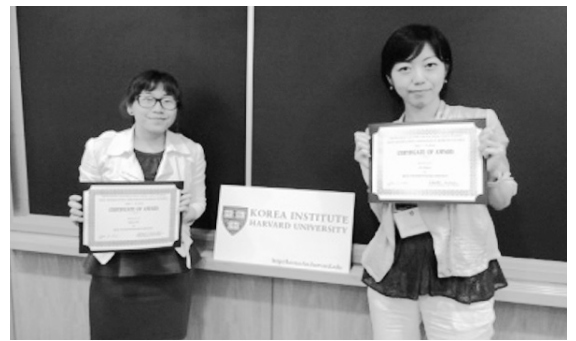
**Sunday, June 8**

- 9:00-10:10 Session 4  
 Chaired b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9:00-9:20 Student 8: Jeong Yeon Choi  
 (Academy of Korean Studies)  
 9:20-9:40 Student 9: Tommy Tran (UCLA)  
 9:40-10:10 Discussion: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10:30-12:15 p.m. Session 5  
 Chaired by Ruth Barraclough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10:30-10:50 Student 10: Lauren Richards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0:50-11:10 Student 11: Eugene Lee (SOAS)  
 11:10-11:30 Student 12: Maaike de Vries  
 (Leiden University)  
 11:30-12:15 Discussion: Ruth Barraclough and Jiyong  
 Zheng (Fudan University)  
 1:30-3:15 Session 6  
 Chaired by John Duncan (UCLA)  
 1:30-1:50 Student 13: Aihua, Jin (Peking University)  
 1:50-2:10 Student 14: Alexander Hager  
 (University of Hawaii)  
 2:10-2:30 Student 15: Bowoon Keum (Korea University)  
 2:30-3:15 Discussion: John Duncan and Li Yan  
 (visiting professor of Korea Institute of Beijing  
 University)  
 3:30-5:00 Faculty Meeting

**Monday, June 9**

- 9:00-10:10 Session 7  
 Chaired by John Cho (Harvard University)  
 9:00-9:20 Student 16: Yu Muto (Kyushu University)  
 9:20-9:40 Student 17: Chi-Hoon Kim  
 (University of Indiana)  
 9:40-10:10 Discussion: Hitoshi Nakano (Kyushu University)  
 10:30-12:15 p.m. Session 8  
 Chaired by Takatoshi Matsubara  
 (Kyushu University)  
 10:30-10:50 Student 18: Khue Do  
 (Seoul National University)  
 10:50-11:10 Student 19: Anmol Mukhi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dia)  
 11:10-11:30 Student 20: Jana Hajzlerova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11:30-12:15 Discussion: Kyoung Park (Harvard University)  
 Faculty Participant and Takatoshi Matsubara  
 1:30-2:30 Keynote Speech by Deoksoo Choi  
 (Korea University)  
 2:30-3:00 Closing Ceremony





# 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キャンパス韓国・日本)

아시아태평양 컬리지 (캠퍼스 한국・일본)

2014年8月14日~29日

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は、本学と釜山大学校（韓国）、ハワイ大学（米国）が拠点大学となり、日韓米の7大学が各大学独自の教育リソースを活用した「国際体験型」共同教育プログラムである。2年を1クールとして実施するが、参加学生は1年目の日韓共同教育プログラム（「キャンパス韓国」「キャンパス日本」）を通して培ったローカルな視点に加え、2年目には日韓米共同教育プログラム（「キャンパスハワイ」）を通してグローバルな視点を備えるようになる。相互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共通課題を発見し解決する力を備えた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を目的としている。

2014年度には、1年目のプログラムとして、8月14日から29日まで、日韓6大学から140名が参加した。夏休みの2週間を利用して、ソウルから出発し、釜山、鹿児島、福岡に移動しながら、6大学のキャンパスを共有し、特別講義、インターンシップ、文化体験などに参加した。特別講義では、日韓の共通課題をテーマに、別所浩郎駐韓日本大使をはじめ、日韓6大学の先生方の講義が行われた。そして、福岡で実施したインターンシップでは、九州電力株式会社と住友商事九州株式会社、株式会社やま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NTT 西日本）、公益財団法人福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日本通運株式会社、株式会社七尾製菓を訪問し、事前に企業から与えられたテーマに基づいて、グループごとに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った。地域企業との連携を積極的に図っていくことも、このプログラムの特徴である。

2年目の来年度からは、日韓プログラムに加えて、今年度の日韓国際共同教育に参加した日韓の学生140名から成績上位20名を選抜し、東アジア学（Asian Studies）に特化している米国のハワイ大学で日韓米共同教育プログラムを開始する。国際社会における日韓の立ち位置を理解し、グローバルな観点から両国関係を捉え直す機会を提供する。日韓の若者たちが、世界の各分野で活躍するグローバル・リーダーとして成長する第一歩を踏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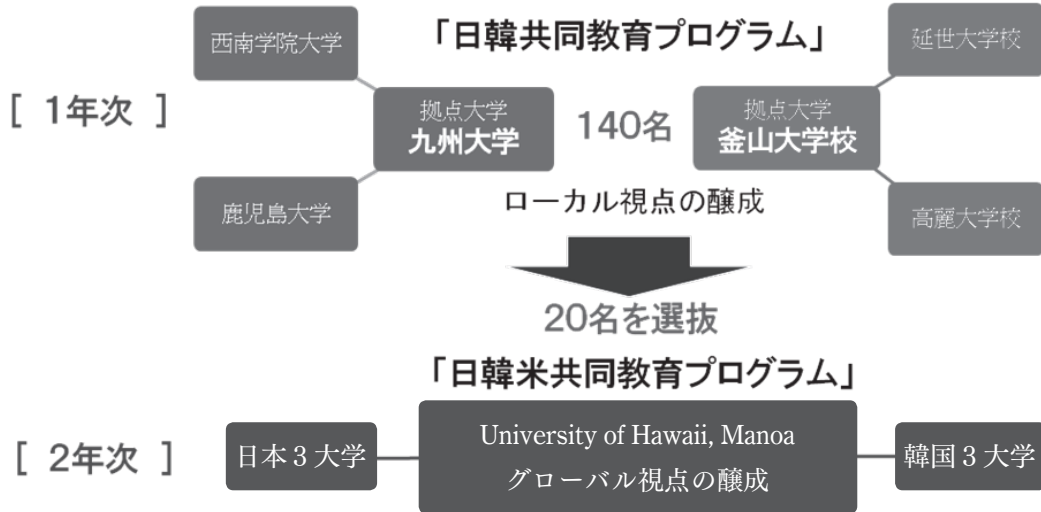
平成27年度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これからの日韓新時代をどのように切り拓いていくのかが問われている。九州大学が拠点大学となって推進する本プログラムは、日韓を軸に未来を切り拓く人材づくりに貢献することで、両国関係の新たな局面を切り開く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と確信している。今後、韓国研究センターと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が協同で、本プログラムの更なる充実化・高度化を図っていく。

아시아태평양컬리지는 규슈대학, 부산대학교, 하와이 대학이 거점 대학으로, 일본, 한국, 미국의 7 대학이 각 대학의 독자적인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국제 체험형”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2년을 하나의 싸이클로 하여, 첫번째 해에는 한일공동프로그램 (“캠퍼스 한국” 과 “캠퍼스 일본”) 을 통하여 로컬 관점을 배우고, 두번째 해에는 한미일공동 교육프로그램 (“캠퍼스 하와이”) 을 통해 글로벌한 관점을 키운다.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할 힘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도는 프로그램의 첫번째 해로 8월 14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의 6개 대학에서 140명이 참석하였다. 여름 방학 2주간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 가고시마, 후쿠오카로 이동하면서 6개 대학 캠퍼스를 공유하며, 특별강의, 인턴십, 문화체험 등을 경험하였다. 특별강의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과제를 주제로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를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의 6개 대학 교수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실시된 인턴십에서는 규슈전력 주식회사와 스미토모상사규슈 주식회사, 주식회사 야마야 코뮤니케이션즈, 서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 (NTT 서일본),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 관광컨벤션뷰로, 일본통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나오제과를 방문하여 사전에 각 기업에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그룹 발표를 하였다. 지역 기업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내년도에는 한일 프로그램의 첫째 해를 운영함과 동시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작년에 한일 프로그램을 참가한 학생 14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하여 동아시아학 (Asian Studies) 으로 특화된 미국 하와이 대학에 파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지위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의 청년이 세계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 한일 신시대를 어떻게 열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규슈대학이 거점대학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를 개척할 인재 배출에 공헌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연구센터와 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본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インターンシップの概要 ※2014年 8月 26日実施 (6月~7月プレゼンテーション準備)

《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テーマ一覧》

1. 住友商事九州株式会社  
「東アジアをつなぐ新しいビジネスプラン」
2. 九州電力株式会社  
「再生可能なエネルギーの普及拡大方策」
3. 株式会社やま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東アジアの食文化の特長を分析し、その特長を生かしたビジネス案」
4. 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TT 西日本)  
「東アジアの社会問題解決に向け IT 利活用戦略ーブロードバンド回線 (FTTH) を活用した新たな生活スタイル・行動スタイルの提案ー」
5. 公益財団法人福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Web サイトと SNS を活用した国際都市福岡の情報発信モデルの策定」
6. 七尾製菓株式会社  
「アジア各国への菓子の嗜好を踏まえた進出戦略」
7. 日本通運株式会社  
「グローバル物流を最適化するためのアイテム」



◆閉講式





# 九州大学・高麗大学校 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

## 규슈대학・고려대학교 한국학 국제 학술 세미나

2014년 12월 5일에,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高麗大学校文科大学の共催で、「九州大学・高麗大学校 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を開催した。高麗大からは文科大学韓国史専攻の博士課程の大学院生が選抜され来日した。一方、九大側からは韓国学に携わる研究者と大学院生の混合チームが編成された。開会の辞を、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に客員教授として来学している姜制勲（高麗大学文科大学教授）が務め、閉会の辞を松原孝俊（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長）が行った。短い時間のなかで多くの報告が行われたが、それぞれの報告において熱い質疑応答が繰り広げられ、日韓における韓国学研究的の学術交流に一石を投じることになった。

2014년 12월 5일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의 공동개최로 “규슈대학・고려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고려대 측에서는 문과대학 한국사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중에서 우수한 자가 선발되어 일본에 왔다. 한편 규슈대 측에서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다. 개회사는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에 객원교수로 와 있는 강제훈 교수(고려대학교 문과대학)가 하였으며, 폐회사는 마쓰바라 다카토시 센터장(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이 하였다.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각각의 발표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한국의 한국학 연구와 학술교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日時：2014年12月5日(金) 13:30~18:00 / 場所：韓国研究センター一階会議室  
主催：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高麗大学校文科大学  
開会の辞：姜制勲(高麗大学校文科大学教授)

- 1部：13:30-13:50 「日本における北朝鮮観と平壤の現在」 水島玲央(九州大学)  
13:50-14:10 「高麗の対宋留學生派遣とその意味」 李ハルン(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4:10-14:30 「朝鮮中期の經筵運営とその政治的意味」 李憬東(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 2部：14:40-15:00 「対馬宗家文書のハングル書簡」 山口華代(対馬歴史民俗資料館学芸員)  
15:00-15:20 「『大東合邦論』の再検討」 榎谷祐一(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5:20-15:40 「『在朝日本人』の植民地記憶の政治性」 申鎬(九州産業大学)  
15:40-16:00 「『學生寫眞帳』から見た九州帝國大學農學部の留學生」 金延実(九州大学)
- 3部：16:10-16:30  
「1930年代半ば、社会主義者たちの民族文化認識—林和の民族語議論を中心に—」  
林東賢(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6:30-16:50 「韓国国立「中央」博物館の歴史を顧みる」 鄭有珍(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6:50-17:10 「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南北文化競争を通じた考察—」  
江上慎太郎(九州大学比較社会文化学府博士課程)

閉会の辞：松原孝俊(九州大学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長)



일시：2014년12월5일(금) 13:30~18:00 / 장소：한국연구센터1층 회의실  
공동주최：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개회사：강제훈(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 제1부：13:30-13:50 「日本の 북한 인식과 평양의 현재」 미즈시마 레오(규슈대)  
13:50-14:10 「高麗의 對宋留學生 파견과 그 의미」 이바른(고려대 한국사학과)  
14:10-14:30 「朝鮮中期 經筵의 運營과 그 政治的 意味」 이경동(고려대 한국사학과)
- 제2부：14:40-15:00 「대마도 종가 문서의 한글 편지」 야마구치 카요(츠시마 역사민속 자료관 학예원)  
15:00-15:20 「大東合邦論」의 재검토 마스타니 유이치(고려대 한국사학과)  
15:20-15:40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기억의 정치성 신 호(규슈산업대)  
15:40-16:00 「학생 사진첩에서 본 규슈대학 농학부 유학생」 김정실(규슈대)
- 제3부：16:10-16:30 「1930년대 중반 사회주의자들의 민족문화 인식 - 林和의 민족어 논의를 중심으로 -」  
임동현(고려대 한국사학과)  
16:30-16:50 「한국 국립 '중앙' 박물관의 역사를 돌아보다」 정유진(고려대 한국사학과)  
16:50-17:10 「박정희 정부의 문화 정책 - 남북 문화 경쟁을 통한 고찰」  
에가미 신타로(규슈대 비교사회문화학부)

폐회사：마쓰바라 다카토시(규슈대학 아시아 태평양미래연구센터장)



## 韓国研究センター主催で行われた研究集会の紹介

### 한국연구센터 주최로 개최한 연구집회 소개

韓国研究センターではこれまで、政治学や歴史学など韓国に関するさまざまな分野について研究会を開催し、日本における韓国学の普及に取り組んできた。2014年は日本と韓国以外の国から韓国学研究者を招聘し、研究会を企画することにした。

7月23日には世界韓国学コンソーシアムにも参加し、チェコのプラハ・カレル大学大学院に在籍する Jana Hajzlerova 氏を招聘し、旧東側諸国であったチェコと朝鮮半島とりわけ北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報告が行われた。

また11月11日には中国の北京大学から金景一・李婷婷両氏を招聘して研究会を行った。金景一報告では中国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説明が行われたが、本学の李弘杓法学部教授がアメリカによる北朝鮮政策を補足説明し、非常に白熱した議論が展開された。

한국연구센터에서는 그 동안 정치학이나 역사학 등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를 개최하고 일본에서 한국학이 보급되는 것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에는 일본과 한국 외의 국가에서도 한국학 연구자를 초빙하고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7월 23일에는 세계한국 컨소시엄에 참석한 체코 프라하대학 대학원 소속의 Jana Hajzlerova 를 초빙하여, 구 공산권이었던 체코와 한반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11월 11일에는 북경대학에서 김경일 교수와 이정정 교수를 초빙하여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김경일 교수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북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이홍표 규슈대학 법학부 교수가 미국의 북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매우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講師：Jana Hajzlerova

所属：チェコ・プラハ・カレル大学

日時：2014年7月23日（水曜日）

場所：九州大学箱崎キャンパス理学部3号館3階301号室

13:30～14:30

Jana Hajzlerova 「チェコ・朝鮮半島関係史」



講師：金景一・李婷婷

所属：中国・北京大学

日時：2014年11月11日

場所：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1階会議室

後援：科学研究費 基盤研究(B)「中朝関係の総合的研究」

14:30～16:00 李婷婷「脱植民政治経済の構築

—1945-60年帰属企業体の財産権処理」

16:20～18:10 金景一「中国の朝鮮半島政策」





# 韓国研究センター客員教授紹介

## 한국연구센터 객원교수 소개



### 第34代 全兪穆 (韓國學中央研究院教授) 任期: 2014年2月4日~3月27日

専門分野は古文書学と朝鮮後期社会史。全北大学校卒業後、同大学大学院で文学博士号を取得。全北大学校博物館助教、学芸研究士、研究官を歴任し、2003年9月より韓国学中央研究院に着任。韓国学中央研究院では蔵書閣古文書室長や研究処長を歴任した。2014年3月18日に行われた研究会では、「규제와 감시: 不法과 人情의 힘겨루기」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 제34대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임기: 2014년 2월 4일~3월 27일

전공은 고문서학과 조선 후기 사회사. 전북대학교 졸업 후, 동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 전북대학교 박물관 조교, 학예연구사, 연구관을 역임하고 2003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교수로 취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장서각 고문서 실장과 연구처장을 역임하였다. 2014년 3월 18일에 열린 연구회에서는 「규제와 감시: 不法과 人情의 힘겨루기」를 발표를 하였다.



### 第35代 姜制勳 (高麗大學校教授) 任期: 2014年9月2日~12月22日

専門分野は歴史学とくに朝鮮史。高麗大学校卒業後、同大学大学院で文学博士号を取得。韓国精神文化研究院(現、韓国学中央研究院)、ソウル特別市史編纂委員会で研究員を歴任し、2008年3月より高麗大学校文科大學韓國史学科に着任。現在は韓国史研究所の所長も務めている。2014年12月17日に行われた定例研究会では、「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의 整備とその特徴—《國朝五禮儀》吉禮・凶禮の相互影響を中心に—」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 제35대 강제훈 (고려대학교 교수) 임기 2014년 9월 2일~12월 22일

전공은 역사학 특히 조선사. 고려대학교 졸업 후, 동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에 취임. 현재는 한국사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2014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國朝五禮儀》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를 발표를 하였다.



### 第36代 金東魯 (延世大學校教授) 任期: 2014年12月4日~2015年2月26日

専門分野は社会学。延世大学校卒業後、同大学大学院で社会学修士、シカゴ大学大学院で社会学博士号を取得。1995年より延世大学校社会学科に着任。延世大学校では国家管理研究院院長や入学処長を歴任した。2015年2月に行われた研究会では、「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と NGO」という発表を行った。

### 제36대 김동노 (연세대학교 교수) 임기: 2014년 12월 4일~2015년 2월 26일

전공은 사회학. 연세대학교 졸업 후, 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석사,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 1995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취임. 연세대학교에서는 국가관리연구원 원장, 그리고 입학처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2월에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NGO」를 발표하였다.



### 第37代 姜明求 (ソウル大學校教授) 任期: 2015年1月9日~2月26日

専攻は文化研究、メディア社会史。最近は冷靜時代のメディアの歴史、東アジアに儒敎家族はあるのか: 韓・中・日ドラマからみる家族比較についての多くの論文を発表。知識生産の植民性的の問題に関心があり。『訓民公論場の歴史的形成』という本を刊行する計画。漢陽大学校卒業後、ソウル大大学院で修士、米国アイオワ大学大学院で博士号を取得。1987年ソウル大社会科学大学教授となり、基礎教育院長、自由選考学部推進団長を歴任。現在、アジア研究所所長を兼任。2015年2月に開催された研究会では「知識清算の歴史的基盤と大学の改革: ソウル大学を中心に」を発表した。

### 제37대 강명구 (서울대학교 교수) 임기: 2015년 1월 9일~2월 26일

전공은 문화연구. 미디어 사회사. 최근 냉정 시대 미디어 역사, 동아시아에 유교가족은 있는가: 한 중 일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비교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식생산의 식민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훈민공문장의 역사적 형성》이란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교 교수가 되고, 기초교육원장, 자유전공학부 추진단장을 지냈다. 현재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5년 2월 개최된 연구회에서 「지식생산의 독자적 기반과 대학의 개혁: 서울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韓国研究センターの研究活動一覧

年	月 日	内 容	その他
2014	5月12日	康仁徳 韓国統一部元長官 来学	
	6月3日	ダニエル・キャラハン 在福岡アメリカ領事館領事 来学	
	6月7～9日	第10回世界韓国学研究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会場：ハーバード大学
	6月26日	イ・ジョンオク 韓国統一部情勢分析局長 来学	
	7月23日	研究会 講師：Jana Hajzlerova（プラハ・カレル大学）	会場：九州大学
	8月14日～29日	平成26年度日韓海峡圏カレッジ キャンパス福岡・釜山	会場：九州大学、釜山大学校
	8月25日	別所浩郎 駐大韓民国特命全権大使 来学	
	9月2日	姜制勲教授（高麗大学校） 着任	
	10月15日	エドワード・ドン 駐韓米国大使館公使 来学	
	11月11日	研究会 講師：金景一（北京大学） 李婷婷（北京大学）	会場：九州大学
	12月3日	金東魯教授（延世大学校） 着任	
	12月5日	九州大学・高麗大学校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	会場：九州大学
	12月17日	定例研究会 講師：姜制勲（高麗大学校）	会場：九州大学
	12月22日	姜制勲教授 離任	
2015	1月9日	姜明求教授（ソウル大学校） 着任	
	1月21日	朴起準 在福岡韓国総領事館副総領事と意見交換	
	2月2日	李相逸 韓国国会議員（セヌリ党） 来学	
	2月10日	定例研究会 講師：金東魯（延世大学校） 姜明求（ソウル大学校）	会場：九州大学
	2月26日	金東魯教授 離任	
	2月26日	姜明求教授 離任	
	3月5日	カティア・ベネット 駐日米国大使館一等書記官 来学	